

현실 동떨어진 20년전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급하다

사망·실종구호금 1000만원
주택 침수·파손 피해 90만원
한우 폐사 한마리 156만원
대통령 주재 화상회의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확대 건의

“현장에 가보니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망·실종구호금이 1인당 1000만원이다. (지급 근거 규정) 20년 가량 묶여있었다고 한다. 주택침수 지원금도 90~100만원이다. 살림살이를 새로 들여야 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크다. 100만~500만원으로 (상향) 차등, 확대해 지급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드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회의에서 실정과 어긋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선을 건의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수재민 등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언급한 사망·실종구호금의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지난 2002년 지침 개정 이후 18년째 개정되지 않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폭우 등 재난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낙연 당 대표 후보(왼쪽)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아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을회관에 남아있는 침수 피해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로 사망·실종한 주민 가족들에게 장례비용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김 지사는 이날 화상 회의에서 최소 2000만원의 지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택 침수·파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침은 주택 침수의 경우 수재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전체가 파손돼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

에도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그친다. 전남에서는 이번 폭우로 주택 2338동이 피해를 봤다. 전파 18동, 반파 17동, 침수 2303동이다. 현행 지침대로라면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100만~1300만원이어서 주민들은 사실상 맨손으로 일어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택 피해 복구 지원금과 관련해 “지침 개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년 전인 2010년 이후로는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누가 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원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농업·축산·수산업 복구 지원금도 실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폭우로 전남지역 농경지 피해면적은 7260ha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벼 6556ha, 밭작물 232ha, 시설작물 345ha, 과수 127ha

축산분야에선 150농가에서 34만5000두가 폐사 피해를 봤다. 오리 17만5000수, 닭16만9000수, 한우 450마리, 돼지 80마리 등이다.

현행 지침대로라면 한우 폐사에 대한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156만원, 돼지는 14만원, 육계는 740원, 산란계는 1887원이다.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른 한우의 최근 산지가(600kg 거세우 기준)가 779만원에 이르

고, 암소도 611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농민들이 손에 쥌 수 있는 것은 송아지 한마리 값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농작물 피해 지원금도 사실상 증가·농약비용을 지원하는데 그친다.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복구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정부 하반기 이끌 인선, 호남 인사 중용 여부 촉각

호남 현안 쟁길 창구 좁아져
靑개편 마지막 비서실장 관심
양정철·유은혜·우윤근 거론
9월 예상 부분 개각
지역인사 적극 추천해야

당이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새로운 모습으로 진용을 갖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까지 함께하는 청와대 3기 참모진 진용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주택자 논란 등으로 노영민 비서실장 등 5명의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는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다. 일단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된다. 여기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남 광양에서 3선을 지낸 바 있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관의 이름도 나온다. 김현미 국무총리도 그동안 거론됐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초실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실장에 가장 최측근 인사를 기용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인 박지원·문재인 카드를 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후속 인선과 관련, 지역 인사의 중용 여부도 관심사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퇴진으로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쟁길 인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의 이호승 경제수석과 나주 출신의 김계남 시민사회수석이 있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쟁길 수 있는 창구 역할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광진(정무), 김창수(통일), 조경호(사회통합), 이광철(민정) 비서관 등이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지만 지역과의 소통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청와대 후임 인선과 관련, 지역 정치권 등에서 지역 인사들을 적극 추천하고

여권 핵심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적극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서실장 인선과 맞물려 있는 개각도 주목된다. 일단 9월 정기국회 개원과 추석 이전 진행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반과 달리 현재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지역 출신 장관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주목도가 높다. 정가에서는 김현미 국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호남 색채가 좀 엷어진 측면이 있다”며 “청와대의 후임 인선과 정부 개각에 호남 인사들의 중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당, 불모지 호남 공략 본격 나선다

의원·당직자 등 100여명
구례 수해현장 복구 작업
19일 김종인·주호영 등
5·18묘지 참배 통합 메시지

미래통합당이 불모지인 호남 공략에 본격 나선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호남 지역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오는 19일 ‘한국 민주화 성지’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계획이다.

11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지역 경제인들과 5·18 단체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 참배와 5·18 단체를 면담하는 것은 통합당이 최근 새 정강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것을 계기 삼아 ‘호남 끝안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특위가 마련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또 5·18 참배와 함께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국민통합위원회도 만든다.

통합당이 호남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호남에서의 통합당 지지를 상승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 방문 취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합당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호남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당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선 호남 민심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호남에서의 통합당 지지를 상승을 두고선 “호남에 대한 통합당의 관심에 (지역 민심이)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은 지도부가 전남 섬진강 유역의 전남 구례를 찾은 데 이어 이날은 국회의원·보좌진·당원 등 100여명이 구례 수해 피해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벌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대구 수성갑) 당원 40여명과 함께 구례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최권일 기자 cki@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